

안성 도피안사 한글대장경 봉안 정대불사

두달새 1200명 동참 "가르침대로 살자"

경기도 안성 도출산 도피안사. 장마비도 멈춘 7월의 첫날 도피안사에서는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한글대장경을 머리엔 인 500여 불자들이 절 마당의 법계도를 돌며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며 법계도를 도는 동안에는 먹구름도 걷혔다.

입은 후 법당에 봉안을 한다는 것.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의 대장 불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불사입니다. 모든 사찰이 한글대장경을 모심으로 우리시대의 법보를 갖춘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 페이지라도 대장경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매일 백 배 정진을 하는 것처럼 견고한 신심과 원력을 지닐 수 있



500여 도피안사 불자들이 법계도를 돌며 한글대장경 정대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법신불 모시기' 한마음 한글 장경 4질 봉안 온가족 읽기 의무화

을 것입니다. 법당에 대장경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자 각자가 대장경을 읽고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최소한 자기와 인연 지어진 대장경부터 읽기를 바랍니다." 주지 송암스님은 신도들에게 우라분절(9월 2일)까지 각자에게 인연 지어진 대장경을 다 읽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대불사에 앞서 초청 법사 근일스님(영주 부석사 주지)도 법어를 통해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중생계의 고(苦)와 무상을 뛰어 넘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지혜로운 초월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지극한 다음으로 귀의하고 중생을 이익케 하고자 하는 발원을 세우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일스님은 또 "한글대장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며 "도피안사는 오늘 한글대장경 봉안 불사를 통해 장엄한 법보도량이 되었다"고 축하했다.

도피안사는 한글대장경 봉안불사 동참을 계속 접수받아 9월 2일 우라분절에 2차 정대불사를 봉행할 계획이다. (031)676-8700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대불 사태' 사과 드립니다

해인사 물의 송구...자성 깨치는 일 진력

해인사 청동대불 문제로 결재중에 대중이 밖으로 움직여 교계 안팎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종도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시비란 본시 그른 것만 버리고 옳은 것이라고 취한다면 해결되지 않으며, 옳고 그른 것을 동시에 놓아버려야 끝이 납니다. 이것은 석가 세존의 근본 교설이요 불교의 핵심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저희 남승들은 승가 본연의 화합 자세로 돌아가서 모든 옳고 그른 일들을 한꺼번에 놓아버리고 우리의 본분사인 자성 깨치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45년 7월5일 해인총림 유나 원용 합장

수경스님 청정수행 불씨 다시 살려내자

오늘 새벽, 이곳 극락전에 계신 부처님 전에 향 사르고 엎드렸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35년 먹은 부처님 밥이 나의 처소인 극락전 목탁방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데, 이 몸뚱이 밥알 위에 멍그러니 놓여있습니다. 간곡한 불조의 가르침에 동떨어진 생활이었습니다. 직업중노릇했고, 체면중노릇 했을 뿐, 밥만 축내며 살아온 한스러움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理)와 사(事) 사이에서 무수히 갈등하던 생각이 흘러넘치는 나약한 모습이 흰회 보입니다.

들께 참회의 절을 올립니다. 해인사 선원 스님들의 행위를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단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폭력성이 행위자 몇 사람에게 원인을 돌려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의 행위도 혼란된 폭력성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위의 원인은 혼란되고, 잠재돼 있는 우리 종단의 폭력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인사 선원 스님들은 종단의 폭력성에 물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종단의 문제가 풀어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다그치거나, 책임을 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겠다고 발원하고, 그래서 삭발염의한 나의 문제로 삼아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로참회 단식기도 정진에 들어감은 이런 뜻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 초발심을 새기며, 출가자의 할 일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도반으로 맺어야 하며, 경쟁이 아닌 화합과 원용이 참다운 삶의 길임을 어묵동성, 일거수 일투족하는 가운데 사무쳐야 함을 다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한없이 부끄럽지만, 출가수행자의 삶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생사의 고뇌를 뛰어넘어 뚝뚝생들을 구제하는 길이 어찌 작은 일이며,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해인사가 오락하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섭니다. 바라옵건대, 해인사의 스님들이 우리 종단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항화 추구, 폭력성을 뿌리뽑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나아가 종단의 건강한 풍토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최근의 논란과 사태를 그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인사의 스님들이 밥만 축내 소납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활발한 우리 집단의 기풍을 이어받아 경책하고 탁마해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장부로 살아주시길 당부하는 마음, 간절함으로 전합니다.

물량의 가치를 좇는 행은 수행하는데도, 우리 이웃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할 경계입니다. 절집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수행자로서 옹립해서는 안 됩니다.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국민대중이 참으로 마음 깊이 수회찬탄하는 내용으로 불사계획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소송도 해인사 불사에 어떤 형태로든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 삼칠일 발로참회 단식 기도를 입재하며 고분문에 담긴 한 구절을 깊이 새깁니다. "우리 모두가 초발심을 되새기고, 그러지는 청정수행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어 온 종단이 거듭나도록 굽어 살피소서!" 불기 2545년 7월5일 수경 합장

지난 번 기고문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표현으로 해인사 대중을 불편하게 했다며 저 자신의 허물입니다. 더욱이 선원 스님들로 하여금 본심을 일으키게 했고, 이로 인해 종도들과 불자, 국민대중들이 참담함과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하였으니 그 허를 적지 않습니다. 모든 분

다들 참회의 절을 올립니다. 해인사 선원 스님들의 행위를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단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폭력성이 행위자 몇 사람에게 원인을 돌려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의 행위도 혼란된 폭력성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위의 원인은 혼란되고, 잠재돼 있는 우리 종단의 폭력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해인사 선원 스님들은 종단의 폭력성에 물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종단의 문제가 풀어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다그치거나, 책임을 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겠다고 발원하고, 그래서 삭발염의한 나의 문제로 삼아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로참회 단식기도 정진에 들어감은 이런 뜻에 다름 아닙니다.

'내원사 늘지' 보존 촉구

녹색연합등 환경단체...임도 원상복구도

경남 양산시 천성산 내원사 소유지에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한 것과 관련, 내원사 환경보전대책위원회가 행정소송과 산문폐쇄, 절조장 설치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천성산 천연녹지에 대한 난개발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지 318호 1면 기사 참조)

의 무제처늬는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잠자리난초 등 각종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으나 환경부나 양산시는 보존을 위한 일체의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양시 표충비각 주변 정비

14억 들여 이달초 착수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맘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명대사 표충비가 모셔져 있는 표충비각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경남 밀양시는 모두 14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내 무안면 무안리 표충비각의 주변정비사업을 이달 초순에 본격 착공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근의 사명대사 생가지 및 표충사, 얼음골 등의 지역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이수현씨 추모비 모교 내성고에 건립

일본 지하철에서 취객을 구하고 숨진 자랑스런 불자 고 이수현씨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모교인 내성고 입구에 건립된다. 내성고 10회 동문회가 주축이 되어 유족과 내성고등학교 등이 함께 건립을 추진하는 이번 추모비는 길이 2.4m, 너비 1.4m로 내성고 진입로에 세워지게 되며 8월 중 건립되어 제막식을 갖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스님

조동종 제6대 총무원장에 심월스님(서울 용천사 주지)이 선출돼 2일 종정시무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심월스님은 "목조선공을 진작시켜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이야 화합중단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심월스님은 75년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일봉삼장대학원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조동종 교육원장 포교원장 검찰원장 등을 역임했다. 심월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식은 12일 오전 11시 용천사에서 거행된다. 이경숙 기자

Advertisement for 'Bamseongil Avatar Center' (밤은길 아바타 센터) featuring a quote from a Buddhist figur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center in Seoul.

Large advertisement for 'Mingdang Yuki' (명당 육기) featuring a lotus logo, a list of prices for different levels of the product, and detailed text explaining its benefits for health and spiritual growth.